

국내 DMA 수요 1600톤

수출입 규제 품목으로 수요 감소 예상 ... 일본 수출 불가

고무가황제 및 농약제조용으로 사용되는 DMA(Dimethyl Amine) 국내수요가 1600여톤에 이르고 있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 타이어·농약·염료·폭약·세제용에 사용되는 DMA내수는 연 1600여톤에 이르는 데 부문별 소요량은 고무가황제용이 60%, 농약 및 기타부문이 40%에 이르고 있다.

국내 생산기업인 한국비료는 MMA와 DMA·TMA생산능력 2만여톤 대비 Process조절로 자체 DMF용 2만여톤과 내수판매용 1600여톤, 수출량 1000여톤을 생산하고 있다. 한국비료는 지난해 월 50여톤에서 올해에는 월100여톤을 대만에 수출하고 있는데 가격은 FOB 620~630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다.

DMA는 일본의 수출입 금지품목으로 규정돼 일본수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호주협약에 수출입 규제 품목으로 묶여 수요 감소가 예상된다.

동양화학은 연 800여톤을 농약제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소량을 말레이시아로부터 구매하고 있다.

금호몬산토는 월 30여톤을 고무가황촉진제용으로 사용하고 있다. 금호몬산토는 올해초 한국비료의 공정상 트러블로 15일간 공급이 중단되는 등 공급이 용이치 않아 구매선 변경을 검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DMA 거래가격은 톤당 49만원에서 53만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국제가격에 비해 내수가격이 낮게 거래되고 있다.

또 DMA는 화학무기금지협약의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호주그룹의 수출입 규제 대상으로 묶여 수출입에 규제를 받고 있다.

DMA는 암모니아와 메탄올이 주원료로 암모니아의 치환수에 따라 MMA·DMA·TMA로 구분·생산된다.

DMA수급현황		(단위 : M/T)
구 분		수 량
공 급	한국비료	2,600
	소계	2,600
수 요	동양화학	800
	금호 몬산토	300
	수출	1,000
	기타	500
소계		2,600

<화학저널 1993/9/20>